주말엔 사찰로…사찰로…

Hyundae Bulkyo 8th 8 창간 8주년 특별기획 Ⅳ

자연속 문화공간 · 농장 · 쉼터

'새벽숲길' '천년의 기다림' 수행 · 휴식 함께
산사음악회 · 전시회 도심선 맛볼 수 없는 감동
절에서 텃밭제공 가족과 재밌는 주말 보내기

숲을 배경으로 산사의 대웅전에 비춰진 아름다운 조명에 국악과 가요, 잔잔한 클래식 등의 음악이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런 모습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춰 사찰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찰의 변화는 2~3년 전부터 시작됐다.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려는 인구가 증가하고 주5일 근무제가 부분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찰은 자연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찰은 더 이상 불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농장이요 공연장이요 박물관이고 쉼터다.

번잡함으로 가득한 도심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사찰로 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사찰은 문화생활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의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고 더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여유로운 휴가와 주말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 속의 문화 공간인 사찰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북한산에서 열린 심곡암 산사음악회.

주제가 있는 수련회 5일 새벽 6시, 20여명의 사람들이 해남 대둔사 숲길을 거닌다. 목포 삼호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이정근 씨(38). 주5일 근무가 시작되면서 휴일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새벽숲길'에 참가한 이 씨 가족은 두륜산 곳곳을 거닐며 한껏 자연과 호흡했다.

선 등 각종 수행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가를 유익하게 보내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사찰의 주제있는 수련회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둔사 '새벽숲길'은 꽤나 인기 있는 수련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여유로워진 직장인과 일반인들을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매월 두차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불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데다가 자연과 어울어진 휴식을 맛볼 수 있는 점이 매력이다.

백두대간의 정기를 함께 누리고자 한다면 오대산 월정사의 '천년의 기다림'만한 프로그램도 없다. 적멸보궁과 전나무 숲길로 유명한 특성을 최대한 살린 '천년의 기다림'은 가족이 함께 자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남양주 보광사는 숲과 태극권을 주제로 수련회를 열고 있다. 폭포에서 명상하기, 송하방담(松下放談), 명상하며 걷기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 외에도 보성 대원사의 티베트불교를 겸들인 수련회, 공주 영평사의 구절초와 함께 하는 수련회, 창원 서원사의 낙동강변을 거니는 수련회, 영천 은해사의 팔공산 달빛 산행 수련회, 서울 길상사의 선 수련회 등 지역과 사찰의 특성을 살린 수련회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취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산사음악회 사찰에서 여는 각종 문화공연도 사람들의 발길을 사찰로 끌어들이고 있다.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향연은 공연장이나 전시장에서는 맛볼 수 없는 감동을 느낄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특히 산사음악회는 사찰의 자연환경과 음악이 어우러져 대중적 인기를 모아, 음악회를 여는 사찰이 점차 늘고 있다. 춤과 음악이 있는 산사만 일부러 찾아다니는 '마니아'들도 생겨났다.

광주 증심사는 생명나눔과 환경보호, 종교인의 각성을 생각하자는 취지로 매월 음력 보름 '풍경소리'라는 산사음악회를 열고 있다. 음악회가 시작되면 칠흑같은 어둠을 가르며 무등산으로 퍼져 나가는 선율은 사람들을 불러모으기에 충분하다.

가을을 만끽하고 싶다면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봉화 청량사에서 산사음악회로 알찬 여가를 보낼 수 있다. 실제로 지역주민과 신도들의 반응은 뜨겁다.

전시회를 겸한 산사음악회도 있다. 봄 꽃축제와 단풍축제를 매년 두차례 열고 있는 북한산 심곡암은 선서화 전시회와 음악회를 함께 마련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해남 미황사는 남도 농요에서부터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 미황사 군고(群鼓) 시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땅끝마을 잔치를 벌인다.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공연이 보고 싶다면 음악회에 앞서 열리는 괘불제와 탁본전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이 밖에 진천 보탑사와 서울 도선사, 서울 진관사, 공주 갑사, 광주 무각사, 합천 해인사 등도 음악회를 열어 일반인들의 발걸음을 산사로 이끌고 있다.

주말농장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공연과는 달리 주말농장은 자신이 직접 키우고 수확하는 재미가 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춰 일부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가족과 함께 좀 더 유익하고 보람 있는 주말을 계획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불교의 친환경사상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찰의 주말농장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청도에 1,500여평의 농장을 마련한 대구 관음사는 120여가족에게 텃밭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곳에서 만난 정준철 씨(42) 가족은 5평 남짓한 밭에서 자라고 있는 배추와 상추를 보여주며 "정성스레 밭을 일구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한 주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정씨 가족에게 농장은 주말여가를 유익하게 보낼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아이들의 생태교육을 위한 공간이다.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정토회 주말농장은 3,000평에 달하는 도심 속의 생태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주말이면 농작물을 가꾸려는 가족들이 밭을 일구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연구실험장, 야생화 관찰학습장도 갖추고 있어 교육과 체험학습의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의 파주 생태주말농장은 가구당 10평의 토지를 분양하며, 농작물 재배 경험이 없는 이들을 위해 공동경작도 하고 있다.

귀농을 원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놓고 있는 남원 실상사는 사찰의 고전적인 기능을 넘어 사회재교육과 대안학교의 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특별취재팀
김원우 한명우 박봉영 남동우 김철우 기자

생산불교 지향…사찰경제 새 모델

청운사 산학연구 통해 백련茶 제조 · 판매
목우암 차밭 2천5백평 개간…농협과 연계
실상사 귀농학교 · 생협 등 지역공동체 구성

일부 사찰들이 수행전법도량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생협운영, 연꽃 및 차 재배 등 생산불교를 지향하면서 사찰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김제 청운사는 연꽃 중 향과 영양, 맛, 약효가 뛰어난 백련을 차로 재배, 판매를 하고 있다. 원광대 내에 위치한 '다련원'에서 산학 연구를 통해 3년 전 개발한 백련차, 백련정차, 백련잎차와 연잎, 연자, 연근 등의 판매를 통해 청운사는 사찰 재원의 상당부분을 조달하고 있다.

목포 목우암에서는 2001년 2천5백평을 개간해 차를 재배하고 있다. 내년 쯤 1만여평을 더 개간할 예정인 금산 스님은 찻잎을 무안군 농협등과 연계, 판매해 재정자립을 꾀하고 있다.

각 단위 사찰에서 운영중인 생협도 바른 먹거리 제공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남원 실상사의 경우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라는 큰 틀 속에서 귀농학교, 생협, 농장공동체 등과 연계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상사는 남원군 산내면 입석리에 위치한 농장공동체에 불교적 이론 토대를 제공하고, 농장공동체에서 나온 무공해 생산물들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불교생협이 도농간의 연결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매개체로 작용한다.

수원포교당, 서울 봉은사, 능인선원, 부천 석왕사에서도 인드라망의 불교생협과 연계해 생협을 운영하고 있다. 생협은 사찰에서 운영중인 어린이 법회나 합창단 등의 활동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사찰은 생협 활동에 정신적 ·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일 · 수행 하나로 자립기반 이뤄야"

인터뷰 김제 청운사 주지 도원 스님



"신도에게 만 의존하는 사찰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산불교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원광대 바이오벤처보육센터에 입주한 뒤 산학 연구를 통해 개발한 백련차, 백련정차, 백련잎차와 연자 연근 등 연(蓮)을 이용한 각종 차와 보양식품을 2년 전부터 판매하고 있는 도원스님(김제 청운사 주지 · 사진)은 "과거 사찰에서 수행과 일을 하나로 하여 생산불교를 지향했던 것은 이윤추구로서가 아니라 사찰과 신도, 사회를 연결하는 바람직한 순환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불교에서 말하는 상생의 개념을 사찰에서 도입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막는 최소한의 경제활동으로 사찰도 나름대로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

지적한 도원스님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천적 다양성과 중생과 고락을 같이하며 정도를 일궜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린다면 사찰경제의 자립과 포교의 새로운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찰간 네트워크 구성땐 다양한 사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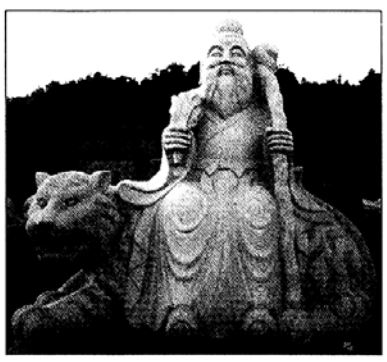
"사찰과 사찰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생산 공동체를 구성할 경우보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도원 스님은 사원경제가 대승불교의 시작이었던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속에 담긴 경제의 의미를 시대상황에 맞게 창출하고, 나아가 사회에 회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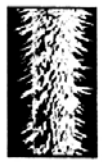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